

# 이두에 대한 북한 학자들의 개념과 인식\*

— 홍기문, 김영황, 류렬, 오히복을 중심으로 —

문현수\*\*

## 〈차 례〉

1. 머리말
2. 남한의 국어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이두의 개념과 인식
3.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이두의 개념과 인식
4. 국어학계와 조선어학계의 이두에 대한 개념 인식 비교
5. 맺음말

## 【국문초록】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이두의 개념이 학자들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도 관찰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의 대표적인 이두 연구서에서 이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 그 결과를 남한의 국어학계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다.

북한의 이두에 대한 개념은 홍기문(1957)에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는 이두를 조선어의 문법 구조에 따라 개편된 조선 한문을 독송한 결과를 기사(記寫)하는 데서 기원하고 발전한 서사어로 정의한다. 김영황(1978)은 홍기문(1957)의 이두 개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그는 고유명사 표기를 '이두식 표기'로 지칭하며 이두의 논의 범주로 끌어들이었으며, 이두음을 이두식 표기를 이두식으로 읽은 음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류렬(1983)에 이르러서는 고유명사 표기에 쓰인 글자들도 이두자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이두자를 이두의 필수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두자는 중국의 한자와 다른 우리만의 형태, 소리, 뜻을 갖는 우리의 글자로서, 여기에는 한국 고유 한자처럼 새로 만들어낸 글자가 포함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 A5C2A02081047). 이 논문은 2022년 4월 29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2 동아시아한국학 국내학술회의(해의 한국어문학 연구의 과거와 현재)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되는 것은 물론, 외형상 한자와 동일하더라도 그 소리와 뜻이 한자 본래의 소리와 뜻과 달라지면 그 글자를 모두 이두자로 보게 되었다. 이두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오희복(1999)에서도 관찰된다.

이에 반해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이두자를 이와 같이 정의하지 않는다. 박성종(2016)처럼 이두자를 이두로 표기에 쓰인 글자로 한정하거나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는 이두자로 보는 새로 만든 글자를 한국 고유한자로서 따로 다루고 있다. 더욱이 이승녕(1955) 이후로 어휘 표기법을 문장 표기법과 구별하는 경향이 강하였기에 고유명사 표기에 쓰이는 글자를 이두자로 보지 않는다.

또한 구결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 남과 북의 학계는 차이를 보인다.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석독구결의 존재로 인해 구결을 우리말 문장 표기법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는 음독구결만을 구결로 보아 구결을 우리말 문장 표기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 문장을 표기하는 표기법을 지칭하는 이두의 하위 유형에 구결을 넣지 않는다.

[주제어] 이두, 국어학, 조선어학, 훈기문, 김영항, 류렬, 오희복

## 1. 머리말

남북 분단 후 남한의 국어학과 북한의 조선어학은 서로 단절되어 독자적인 학문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다행히도 남북 교류의 물결이 일어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남한에서는 북한의 연구서들에 대한 출판이 이루어지며 그 내용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부분적이거나 학술 교류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로 다른 배경하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탓에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남한의 학자들이 보기에 논지 전개 과정이나 연구 결과가 사뭇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연구에서 논의의 전제로 이용되는 배경지식과 선행 연구에 대해 남한의 학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북한의 연구는 남한의 연구에서 거의 인용이 되지 않거나 인용이 되더라도 주변적인 언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향후 이루어질 남북 간의 원활한 학술 교류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연구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

의 연구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한의 국어학계에서 학자들마다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로 바로 이두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이는 이두라는 술어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고 또 시대마다 지칭하는 대상이 조금씩 변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화기 이후 다양한 이두 연구서에서는 이두에 대한 개념 정의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정의의 다양성은 과연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일까?

본고에서는 먼저 남한의 국어학계에서 사용해 온 이두의 개념을 살펴본 후, 북한의 대표적인 이두 관련 연구서들에서 이두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한의 국어학계에서 사용해 온 이두의 개념과 비교·대조해 봄으로써 두 학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남한의 국어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이두의 개념과 인식

남한의 국어학계에서 파악해 온 이두의 개념과 인식에 대해서는 이두에 대한 국어사전의 뜻풀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두에 대한 <고려대 한 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이두[吏讀]’에 대한 뜻풀이

- ① [언어] 신라 때부터 한자(漢字)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던 차자(借字) 표기법. 또는 그 문자. 넓은 의미로는 향찰이나 구결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문을 국어 어순에 따라 배열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을 이른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관공 문서에 서리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 ② [언어] 이두 표기 체계에서 쓰는 글자. 구결자나 향찰자 등과 비슷하지만 약자체를 쓰지 않고 항상 정자체만 쓴다는 점에서 구결자와 다르고 어휘 형태소보다는 주로 문법 형태소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향찰자와 다르다. 爲古(하고), 爲尼(하니), 爲良(하야), 是面(이면), 是羅(이라) 등이 있다.

위의 뜻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두는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법을 지칭하기도 하고 이러한 차자표기법에 따라 표기된 글자를 나타내기도 한다. 서종학(2011)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두를 어떻게 개념 파악을 해 왔는지 검토한 후 개화기 이후 학자들이 이두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이두의 개념

- ㄱ. 표기 결과: ① 형태부 표기 ② 문장의 표기
- ㄴ. 표기법: ① 차자표기법 ② 관리들이 사용하던 행정문의 표기법

이처럼 이두는 표기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표기법에 따라 표기된 결과를 의미하기도 한다. 표기법을 의미할 때에도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 우리 말을 표기하는 차자표기법 전반을 가리키기도 하고 관리들이 사용하던 행정문에 사용되던 차자표기법을 한정하여 가리키기도 한다. 그리고 표기 결과를 의미할 때에도 토를 비롯한 형태부만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문장 전체의 표기를 지칭할 때도 있다.

(3) 〈慶州倭寇擊退事實記 18행〉

- A: 內外兩班/亦 /白活 出城 /不冬 無事避亂/是齊
- B: 내외양반/이 /발괄 출성/안들 무사피란/이저
- C: 내외 양반이 하소연하여 성을 나오지 않고 무사히 난을 피하였다.

(3)은 1379년에 경상도 울주포(蔚州浦)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사실을

기록한 이두 자료의 일부로서 『慶州司首戶長行案』에 수록되어 있다(노명호 외 2011: 346). (3)에는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 조사와 어미 구성을 표기한 ‘亦(주격조사 ‘-이’ 표기)’, ‘是齊(계사 ‘-이-’ + 어미 ‘-저’)와 같은 토와 ‘白活(‘하소연’의 의미를 지니는 고유어 명사 ‘발괄)’, ‘不冬(‘아니’의 의미를 지니는 고유어 부정 부사 ‘안들)’과 같은 어휘가 쓰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 말 토와 어휘와 같은 형태부의 표기 결과를 ‘이두’로 파악하기도 하고(2-7-①), 이러한 토와 어휘가 쓰인 문장 전체인 ‘內外兩班/亦 /白活 出城 /不冬 無事避亂/是齊(내외 양반이 하소연하여 성을 나오지 않고 무사히 난을 피하였다)’를 ‘이두’로 파악하기도 한다(2-7-②).

한편 (3)에는 훈독(訓讀), 음독(音讀), 훈가(訓假), 음가(音假)와 같은 한자 차용 표기 원리를 비롯하여 훈주음종(訓主音從) 및 말음첨기(末音添記)와 같은 표기 원리가 이용되고 있다(남풍현 2002: 16). 예를 들어, ‘不(안)’은 한자를 훈으로 읽으면서 그 표의성을 살려서 이용하는 차자인 훈독자로 쓰이고 있으며, ‘內(내)’와 ‘外(외)’는 한자를 음으로 읽으면서 그 표의성을 살려서 이용하는 차자인 음독자로 쓰이고 있다. ‘是(이)’는 한자를 훈으로 읽되 그 표의성은 버리고 표음성만을 이용하는 차자인 훈가자로 쓰이고 있으며, ‘齊(저)’는 한자를 음으로 읽되 그 표의성은 버리고 표음성만을 이용하는 차자인 음가자로 쓰인다. 그리고 ‘不冬(안들)’과 같은 어휘 표기에서는 선행하는 ‘不’은 한자의 표의성만을 살리고 후행하는 ‘冬’은 한자의 표음성만을 살리는 훈주음종(訓主音從)의 원리와 후행 글자는 전체 어형의 말음만을 표기하는 말음첨기(末音添記)의 원리를 취하고 있으며, 문장 표기에서는 ‘不出城’과 같은 한문의 어순이 아니라 ‘出城 不冬’처럼 한국어 어순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표기법 전체를 ‘이두’로 보기도 하며(2-7-①), 대체로 우리말 어순에 따르며 ‘白活’과 같은 특수 어휘 및 ‘內外兩班’과 같은 한자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不冬’처럼 어미도 빈번하게 생략되는 관리들의 행정문 표기법에 한정하여 ‘이두’로 보기도 한다(2-7-②).

서중학(2011)에서는 이두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을 시대에 따른 이두 용법의 변천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문헌자료에서 사용되는 이두의 용법을 검토한 결과, 초기에는 이두가 차자표기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면서 우리말 문장을 표기 대상으로 삼았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토를 표기 대상으로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그 결과를 이두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개화기 직후 이루어진 이두의 연구인 岡倉由三郎(1893)에서 이두를 ‘서리(胥吏)가 사용하는 어미(語尾)’로 규정하거나 小倉進平(1929)가 이두를 ‘이문(吏文)의 보조어’와 같이 대체로 토의 표기에 한정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두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당시 한문을 읽을 때 첨가되던 음독구결의 토와 외형상 큰 차이가 없게 된다.

(4) ㄱ. 이두의 예: 〈慶州倭寇擊退事實記 6행〉

- A: 賊兵/亦-衛南北路/以 入來 市邊永興寺 /至 圍把/爲去乙  
 B: 적병/이 일위남북로/로 입래 시변영흥사 /니르러 위과/ㅎ거늘  
 C: 적병이 일위(-衛)[수령의 관청]의 남북로로 들어와 시변(市邊)의 영흥사(永興寺)에 이르러 포위하거늘

ㄴ. 음독구결의 예: 〈가람본 능엄경 1권: 1a〉

- A: 明心之士 ㄱ 妄認緣塵 ㄴ 爲物 ㄷ 所轉 ㄹ ㅈ  
 B: 명심지사는 망인연진 ㅎ야 위물의 소전 ㅎ며  
 C: 마음 밝힐 사람이 망령되어 연진(緣塵)을 알아 사물의 옮김이 되며

따라서 Gale이나 Hulbert와 같은 서양인들의 경우 이두와 음독구결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모두 이두로 지칭하기도 하였다(정재영 1998: 55). 방중현(1948: 9-13)에서도 이두를 토의 표기로 보고 있는데, 한문에 쓰인 구결토와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이두를 토를 비롯한 형태부의 표기로 한정하여 보는 관점에서는 이승재(1992: 13)와 같이 이두가 사용된 문장을 가리키는 데 ‘이두문’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여 둘을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 없이 이두를 이두문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이기문(1974: 103)에서

는 이두를 토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표기 결과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한문도 국문도 아닌 그 문장 전체’를 이두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이두와 이두문을 구분하지 않는 관점은 박성중(2016: 12)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이두를 토나 문장의 표기 결과가 아니라 표기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김윤경(1938), 이희승(1955: 22), 이송녕(1955: 65), 홍순탁(1974), 서종학(1995)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희승(1955: 22)에서는 이두를 광의의 이두와 협의의 이두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김윤경(1938)의 견해를 이어받은 것으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표기법 전부를 가리킨다. 후자는 小倉進平(1929)의 견해를 이어받은 것으로 ‘이문의 보조사’로서 앞서 살펴본 토의 표기에 한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서 광의의 이두는 향찰과 구결을 비롯하여 고유명사에 대한 표기법까지도 포함하는 차자표기법 전체를 의미하게 된다.

이희승(1955: 22)에서는 협의의 이두를 표기 결과로서 보고 있지만, 이를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 문장을 표기하는 표기법으로 이해하거나 관리용 행정문에 쓰이는 문체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송녕(1955)에서는 신라의 표기법 체계를 정리하면서 문장의 표기법을 향가로 대표되는 가요와 시의 표기와 이두문으로 대표되는 일반 문장의 표기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中村完(1976)에서는 이두를 서리(胥吏)들이 행정문서 작성시 사용하는 문체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이두를 한자를 이용한 우리말의 문장 표기법으로 보게 되면 고유명사 표기법은 어휘의 표기에만 한정되므로 자연스럽게 이두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런데 이두를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 문장을 표기하는 차자표기법으로 정의한다면, 향가리는 우리말 노래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문장으로 표기한 향찰이나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풀어 읽기 위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문장을 표기한 석독구결과 이두는 표기법상으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말 문장을 표기하는 표기법을 통칭하여 향찰이라고 하는 견해도 제시되기도 하고(小倉進平 1929: 286) 이

를 이두라고 하는 견해도 제시되기도 하였다(안병희 2001; 서종학 2011).

(5) ㄱ. 향찰의 예: <제망매가>

A: -/等隱 枝/良 出/古 去/奴隱 處 /毛冬乎丁

B: 흐든 갖아 나고 가는 곳 모들온더

C: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ㄴ. 이두의 예: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16행>

A: 經心內/中-收 舍利/尔 入/內如

B: 경심내귀 일수 사리곰 넣는다

C: 경심 안에 1매의 사리씩 넣는다

ㄷ. 석독구결의 예: <화엄경소 권35, 1장 3행>

A: 佛子 何 等 菩 薩 摩 訶 薩 聞 藏 : / 今 口 (爲) / 佛 子 何 等 菩 薩 摩 訶 薩 聞 藏

B: 불자야 어노 다흔을 보살마하살르 문장여호리고 흐겨릴든

C: 불자야, 어느 것과 같은 것을 보살마하살의 聞藏이라 하는 것인가 하면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처럼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 문장을 표기하는 차자표기법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는 이두, 향찰, 석독구결을 표기법이 아니라 그 쓰임의 목적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풍현(1986/2002)에서는 향찰을 운문 표기를 위한 것, 이두를 산문 표기를 위한 것, 구결을 한문 해독을 위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승재(1992)에서는 향찰을 문예 창작을 위한 것, 이두를 실용문 작성을 위한 것, 구결을 한문 번역을 위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고유명사 표기법은 어휘 표기법으로, 이두·향찰·구결은 문장 표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말 표기에 음독·훈독·음가·훈가라는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는 네 가지 한자 차용 표기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 남풍현(1986/2002)에서는 고유명사·

향찰·이두·구결의 표기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차자표기법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법은 이승녕(1955)에서 제시된 신라의 표기법 체계의 분류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현재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대체로 고유명사·향찰·이두·구결의 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박성중 2016: 7).

(6) 박성중(2016: 7)의 차자표기 분류법



(6)에서 이두는 차자표기법의 일종으로서 우리말의 산문 표기법을 가리킨다. 그리고 박성중(2016: 16-18)에서는 이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다.

(7) 박성중(2016: 16)의 이두 구성 요소

① 한문 또는 한문식 통사구조를 가진 요소

예) 宥及後世, 非奉上司明文

② ㄱ. 외래어 한자어

예) 家舍, 生前, 屍體

나. 吏文系 한자어

예) 節該, 申, 合下

ㄷ-1. 한국 한자어

예) 之次, 置簿, 鎮長, 喫持, 埋置

2. 한국 한자어 중 법제 및 행정 용어

예) 題辭, 題給, 答通

③ ㄱ. 고유어 어휘

예) 事(일), 飛介(늘개), 衿(깃), 侑音(다듬), 捧上(받자), 爲-(ᄃᆞᆫ-), 進叱  
 -(날-), 加于(더욱/더욱), 莫金(막쇠)

ㄴ. 고유어 문법 형태      예) -以(-로), -去乃(-거나)

④ 혼종어      예) 分衿(분깃), 上下(차下), 斜給(빗給)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박성중(2016: 16-18)에서는 ‘이두어’, ‘이두토’, ‘이두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8) ㄱ. 이두어: 이두문에 쓰인 우리말[(7-①)을 제외한 (7-②), ③, ④]

ㄴ. 이두토: (7-③-ㄴ), (7-③-ㄴ)에 선행하는 어휘 요소, (7-③-ㄴ)을 포함하는 연어 구성.

예) 無亦, 無-, -亦, 不喩, 爲乎等乙用郎

ㄷ. 이두자: 이두토 표기에 쓰인 字.

예) 爲乎事の 爲, 乎, 事

여기서 ‘이두어’는 ‘이두문에 쓰인 우리말’이므로 한문식 통사구조를 가진 요소는 제외된다. 따라서 (7-①)을 제외한 (7-②), (7-③), (7-④)를 ‘이두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두토’는 조사와 어미의 문법형태만을 한정하여 지칭하지 않고 이것이 포함된 어휘 형태 및 연어 구성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구결에서 쓰이던 ‘토’의 개념을 이두에까지 확장시켜 적용한 것이다. 구결은 한문 원문과 이에 덧붙는 토로 구성되는데, 이때의 토는 ‘한문을 우리말로 읽거나 이해하도록 지시하는 부호나 국어의 기능어, 또는 그 集合體’로 정의할 수 있다(남풍현 2000: 14), ‘이두토’를 문법형태를 가리키는 데에만 한정하면 ‘無亦’, ‘不喩’, ‘爲乎等乙用郎’과 같은 구성에서 어휘 요소인 ‘無-’, ‘不-’, ‘爲-’가 배제되고 전통적으로 ‘토’로 인식해 오던 ‘爲乎等乙用郎’와 같은 구성을 이두토에 포함시키기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두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말 어휘와 문법 형태를 표기하는 한자를 의미하지만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면 논의가 번거로워지므로 이두토 표기에 쓰인 글자만을 지칭

하는 개념으로 한정하고 있다.

### 3.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이두의 개념과 인식

이 장에서는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 이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개념 정의를 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두에 대한 최초의 연구서를 집필한 홍기문을 비롯하여, 이에 영향을 받아 이두 연구의 논의 범위를 확장한 김영환과 이두의 개념을 확장하여 새롭게 정의한 류렬, 가장 최근에 이두 연구서를 집필한 오희복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홍기문(1957)의 이두에 대한 개념과 인식

홍기문(1957)은 김일성종합대학에 제출한 두 편의 박사학위논문 중 하나로 이두에 대한 종합 연구서이다. 여기서 그는 이두에 대하여 ‘한자를 이용하여 조선어를 기사(記寫)하는 문자 체계’로서 ‘조선어의 문법 구조에 따라 개편된 한문의 한 문체’로 정의하고 있다(홍기문 1957: 5).

그는 일찍이 서사어로서의 중국의 한문이 한반도에 수입되어 서사어로 정립되었고, 이후 이를 독자적으로 변경하여 서사어로서의 조선 한문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조선 한문의 특징으로 ①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한자를 변경한 글자가 사용되고 ②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가 쓰이며 ③ 그 독음은 우리의 음운체계에 따라 읽혔으며 ④ 구절말에 토를 첨가하여 독송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홍기문 1957: 11-13).<sup>1)</sup> 그리고 이두는 이처럼 조

1)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한문의 독송법을 향찰식 독송법, 구결식 독송법, 제문식 독송법으로 나누고 있다. 향찰식 독송법은 서사어(한문)와 구두어(조선어)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축소하고자 번역 과정을 독송법으로 고정시킨 것으로, 석독구결식 한문 독송법에 해당한다. 구결식 독송법은 토가 있는 한자음 위주의 한문 독송법으로, 음독구결식 한문 독송법에 해당한다. 제문식 독송법은 토가 없는 한자음 위주의 한문 독송법으로, 일본의 ‘보요미(樞詠み)’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 한문을 독송한 결과를 기사(記寫)하는 데서 기원하고 발전한 서사어라는 의견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홍기문은 이두를 형태 차원이 아니라 문장 차원의 표기법이라는 측면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두의 문장 차원의 특성을 논하기에 앞서 문장의 구성요소인 단어 내지 토 차원의 표기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9) 홍기문(1957: 17-24)의 한자 차용 표기법

〈주 원리〉

- ① 음역(音譯)
- ② 의역(意譯)
- ③ 이의역(異意譯)
- ④ 반음역(半音譯)

〈부차 원리〉

- ① 유사음 이용 가능 원리
- ② 부분음 이용 가능 원리

여기서 음역(音譯)은 앞서 언급한 남풍현(2002)의 음가(音假)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의역(意譯)과 이의역(異意譯)은 각각 훈독(訓讀)과 훈가(訓假)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반음역(半音譯)은 훈주음종(訓主音從) 및 말음첨기(末音添記)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고유어 음절과 한자어 음절의 불일치로 인해 동일음만을 이용해 음역하기 어려우므로 유사음을 이용해 음역이 가능하다는 부차 원리와 중성 표기와 같이 음절을 이루지 않는 음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 음절의 부분음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차 원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홍기문 1957: 13-17).

홍기문은 문장 차원에서의 이두의 표기법적 특징으로 (9)의 표기법에 따른 단어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하고 토를 첨가하는 것을 들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홍기문은 이두를 조선 한문을 독송한 결과를 기사(記寫)하는 데서 기원하고 발전한 서사어로 보고 있는데, 조선 한문의 독송은 석독구결과 같이 구두어로 번역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두에는 구두어의 문법이 많이 반영되어 중국의 한문과는 변별되는 독특한 서사어로 성립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취하고 있다(홍기문 1957: 24). 이에 따라 중국의 한문과 변별되는 데 있어 주요하게 작용하는 이두의 기본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0) 홍기문(1957: 24)에서 제시한 이두 구성의 기본적 요소

- ① 이두적 어순
- ② 한자 표기 어휘(=이두어)
- ③ 이두토

여기서 ‘한자 표기 어휘’는 훈독자, 훈가자, 음가자로 읽히는 한자어 구성으로서 ‘이두어’를 말한다. 그는 음독자로 읽히며 순수한 한문에서도 쓰이는 한자어 구성은 한자 어휘로 지칭하며 이두의 구성 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홍기문은 이두의 하위 분류로서 ① 초기 이두 ② 이찰 ③ 향찰 ④ 구결을 들고 있다. 그는 초기 이두를 이두토가 사용되기 이전에 오로지 이두적 어순만으로 구성되는 서사어로 특징짓고 있으며 이러한 이두적 어순이 발생한 원인은 구두어에 영향을 받은 한문 독송법의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초기 이두는 고구려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두의 완성은 신라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sup>2)</sup> 이어서 홍기문은 이찰에 대해 이두의 여러 형태 중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서 초기 이두가 점차 발달되어 관청용 서사어로서 체계를 갖춘 것

2) 그는 초기 이두가 고구려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고구려 지명 표기에서 이두자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 고구려 지명 표기에 이의역(異意譯)이 쓰인다는 점, 평양 성돌 자료에서 이두토가 쓰인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신라에서 더 많은 이두자와 이두토가 쓰이며 이두어가 축적되었다는 점을 들어 신라에서 이두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홍기문 1957: 26-29).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특징으로 한문적 어순도 일부 사용되고 음독자 중심의 한자어가 쓰이며 이두토가 쓰이는 것을 들고 있다. 향찰은 구두어를 가능한 데까지 완전히 한자로 기사(記寫)하는 이두의 형태로서, 이두적 어순으로 일관하며 주로 훈독자, 훈가자, 음가자로 읽히는 한자어 구성을 사용하며 토도 이찰보다 더욱 구두어에 가깝게 쓰이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결은 한문 독송을 위해 이두토를 달거나 한문 책에 그것을 한자로 기입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두의 한 형태로 취급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구결은 한문식 어순을 따른다는 점에서 이찰, 향찰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홍기문(1957)에서는 이두를 조선어의 문법 구조에 따라 개편된 한문의 한 문체로서 성립한 서사어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이두의 정의에 따르면 구결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두의 한 종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기문(1957)에서 구결을 이두의 한 형태로 분류한 것은 이찰, 향찰과 마찬가지로 구결에서도 토가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11) ‘이두어’, ‘이두토’, ‘이두자’, ‘이두음’에 대한 홍기문(1957)의 개념 정의

ㄱ. 이두자: 기존의 중국 한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글자.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변경한 글자로서, ① 새로 만든 자 ② 변해 쓰는 자 ③ 표음하는 자 ④ 변형시킨 자가 여기에 속한다.

ㄴ. 이두어: 기존의 중국 한문에 쓰이는 한자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말 성어(成語).

ㄷ. 이두토: 위치토와 보조토로 구성되는, 우리말의 조사와 어미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

ㄹ. 이두음: 현행 한자음과 다르게 읽는 이두자·이두어·이두토의 음.

3) 홍기문(1957)이 저술될 시기에는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우리말로 풀어 읽는 석독구결이 발견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이때의 구결은 한문을 한문의 어순에 따라 한자음으로 읽으면서 구결말에 우리말 토를 붙여 읽는 음독구결을 말한다.

한편 홍기문(1957)에서는 이두의 구성 요소로서의 이두자, 이두어, 이두토, 이두음에 대하여 (11)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두자에 대한 정의이다. 홍기문은 이두자를 중국의 한문에서 찾아보기 힘든 글자로 정의하며, ‘좡(논답)’과 같이 새롭게 만들어 낸 한국 고유 한자를 이두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11-7-①). 또한 한자와 동일한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한자로서의 용법과는 달리 우리말의 의존명사 ‘뿐’을 표기하기 위해 쓰인 ‘分’도 이두자의 범주에 포함되며(11-7-②), 단순히 우리말 음절 ‘둘’을 표시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짚’과 같은 글자로 이두자에 속한다(11-7-③). 마지막으로 한자어인 ‘仔細’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字細’의 ‘字’처럼 중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형의 글자도 이두자의 하나로써 취급하고 있다(11-7-④). 이러한 이두자의 정의는 이두자를 토 표기에 쓰이는 글자로 한정하는 박성종(2016)의 견해와는 사뭇 다르다. 특히 남한의 국어학계에서 한국 고유한자로 따로 분류하는 것까지 이두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홍기문(1957)에서는 이두토를 박성종(2016)과 달리 우리말의 조사와 어미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조선어 학계에서 토를 조사와 어미만을 가리키는 술어로 쓰고 있는 것과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홍기문(1957)에서는 ‘이두음’이라는 개념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언급할 만하다.

## 2) 김영황(1978)의 이두에 대한 개념과 인식

김영황(1978)은 김일성종합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을 책으로 출판한 것으로 우리말의 발전 역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김영황(1978)은 대체로 홍기문(1957)의 이두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자기 나름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유명사의 표기법을 ‘이두식 표기’라고 하여 이두의 논의 범위 안에 포함시킨 것이

다. 그는 이두식 표기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과 운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이는 홍기문(1957)에서 제시된 네 가지 한자 차용 표기법인 음역, 의역, 이의역, 반의반음역을 바탕으로 ‘대치’라는 어휘 표기의 운용법을 추가하여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다.

(12) 김영환(1978: 16-18)의 이두식 표기 유형과 운용법

ㄱ. 이두식 표기의 기본 유형

- ① 음역: 한자음 또는 그 유사음을 빌어서 우리말을 적는 방법
- ② 의역: 한자의 뜻을 빌어서 우리말을 적는 방법
- ③ 이의역: 동음이의적인 관계에 있는 한자의 뜻을 빌어서 우리말을 적는 방법
- ④ 반의반음역: 한자의 뜻으로 우리말을 적어 놓은 다음에 또 한자의 음을 빌어서 우리말 아래부분을 보충하여 적는 방법

ㄴ. 이두식 표기의 대치 방법

- ① 음역과 음역의 관계에 따라 대치하는 방법  
: 古宝里 - 古巴里(고보리)
- ② 의역과 의역의 관계에 따라 대치하는 방법: 赤川 - 丹溪(불구내)
- ③ 음역과 의역의 관계에 따라 대치하는 방법: 翰山 - 大山(한-)
- ④ 의역에서 동음이의적 관계에 따라 대치하는 방법  
: 徒山 - 猿山(나-)
- ⑤ 음역과 반의반음역의 관계에 따라 대치하는 방법  
: 勿居 - 淸渠(말가)
- ⑥ 음역에서 유사음인 한자의 뜻을 고려하여 대치하는 방법  
: 于火 - 虞風(웃벌)
- ⑦ 간접적인 매개를 통하여 달리 대치하는 방법  
: 古尸山 - (串) - 管城<sup>4)</sup>

4) 김영환(1978: 17)에서는 ‘古尸’를 ‘고지’로 해독한 후, ‘串’을 ‘고지’라는 훈과 ‘관’이라는 음을 가진 한자로 보아 이와 동일한 음을 지닌 ‘管’을 ‘古尸’와 연관시키고 있다.

⑧ 비유적 관계에 따라 대치하는 방법: 碧骨提 - 金提<sup>5)</sup>

그는 이두식 표기의 기본 유형과 대치 방법의 확립을 통해 한자를 차용해 우리말을 적는 서사체계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이는 이후 단어 표기와 문장 표기로까지 확대되어 이두의 서사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김영환(1978: 83)에서는 이두를 한문과 구분되는 이두적 표식을 갖춘 전 일적인 서사체계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13) 김영환(1978: 83-86)의 이두 구성 요소

- ㄱ. 이두음: 이두식 표기로 된 것을 이두식으로 읽게 될 때의 음.
- ㄴ. 이두자: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바꾸어 쓴 문자. 이두자에는 ① 새로 만든 자 ② 바꾸어 쓰는 자 ③ 표음하는 자 ④ 합성시킨 자와 같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 ㄷ. 이두어: 이두식 표기로 된 우리말 어휘. 이두음으로 읽을 것을 전제로 한다.
- ㄹ. 이두토: 우리말의 토를 표기한 부분. 한 문장 안에서 단어의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자리토(-은, -고)와 그 자리토에 붙어서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는 끼움토(-삽오-, -엇-)가 있다.
- ㅁ. 이두 어순: 한문어순이 아니라 우리말식 어순을 좇은 이두의 어순.

김영환(1978)은 이두음, 이두자, 이두어는 이두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특징적인 요소이며, 이두토는 중요한 요소, 이두 어순은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비중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의 개념과 정의는 기본적으로 홍기문(1957)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이두음의 정의가 홍기문(1957)과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기문

5) 김영환(1978: 17)에서는 '碧骨'을 이두식 표기로서 '벼골'의 음을 가진다고 본 후, 가을의 벼골이 황금빛에 비유할 수 있어 '鎗'과 대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957)에서는 이두음을 ‘현행 한자음과 다르게 읽는 이두자·이두어·이두토의 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김영황(1978)에서는 이두음을 ‘이두식 표기로 된 것을 이두식으로 읽게 될 때의 음’으로 정의하여 그 대상을 이두식 표기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두음을 이렇게 정의하면 고유명사 표기도 이두음을 지니는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홍기문(1957)이 이두의 기본 요소로 이두어, 이두토, 이두 어순만을 제시한 것과 달리 김영황(1978)에서는 이에 더해 이두음과 이두자를 이두의 구성 요소로 추가하고 있다. 김영황(1978)에서 이처럼 이두음과 이두자를 보다 강조하게 된 것은 고유명사 표기법을 이두식 표기라고 새롭게 개념 정의를 하여 이두의 논의 범위 안에 포함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김영황(1978: 86-92)에서는 이두식 표기를 이두의 직접적인 하위 유형에는 포함시키지는 않는데, 이는 그가 기본적으로 이두를 홍기문(1957)처럼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 문장을 표기하는 문장 표기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두의 하위 유형으로 ① 초기 이두 ② 이찰 ③ 향찰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이두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그는 초기 이두는 이두 발전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로 금석문에 쓰이고, 이찰은 초기 이두보다 발전된 형태로 공문서에 쓰이고, 향찰은 구어를 가능한 데까지 기사(記寫)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가에 쓰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찰은 초기 이두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직접적인 후대형으로서 보고 있으며, 향찰은 향가 표기를 위해 특수하게 생겨난 이두 서사 체계의 하나로서 주류가 아닌 결가지로서 취급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홍기문(1957)에서는 이두의 하위 유형으로 넣었던 구결을 이두의 하위 유형에서 제외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당시 구결은 음독구결에서 한문 원문에 덧붙는 토를 가리키던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말 문장 표기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김영황(1978)에서는 구결을 이두의 하위 유형에서 배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류렬(1983)의 이두에 대한 개념과 인식

류렬(1983)은 삼국시대 고유명사 표기법을 주제로 북한에서 제출한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류렬(1983: 11)에서는 이두를 ‘한자를 기본수단으로 하고 그 음이나 뜻을 조선말의 입장에서 이용하여 조선말을 그 구조적 특성에 맞게 독특한 방식으로 적은 특수한 유형의 글’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어서 류렬(1983: 13)에서는 또 이두를 ‘비록 한자로 쓰여 있으나 그것은 결코 한문이 아니며 따라서 한문으로는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어디까지나 조선말을 적어 놓은 독특한 조선글의 하나’로서 보고 있다.

그러나 류렬(1983)에서 언급한 ‘조선글’에는 문장뿐만이 아니라 어휘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두의 구성 요소로서 ‘이두글자’를 중심으로 이두글자가 나타내는 음인 ‘이두음’과 이두글자가 나타내는 ‘이두뜻’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이두글자로 표기된 글 전체를 이두로 보고 있다.

#### (14) 류렬(1983: 14-15)에서 제시한 이두의 구성 요소

- ㄱ. 이두글자: 이두에 쓰이는 글자. 원래의 한자와 우리말 표기를 위해 한자 모양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글자도 포함되며, 한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 ㄴ. 이두음: 이두에 쓰이는 이두글자가 나타내는 음. 이두글자가 쓰이던 당시의 한자음을 바탕으로 한다.
- ㄷ. 이두뜻: 이두에 쓰이는 이두글자가 나타내는 뜻. 한자인 경우에도 그 글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뜻을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두에 쓰인 그 제한된 범위의 일정한 뜻을 나타낸다.

류렬(1983: 15)은 이두를 ‘한자를 기본수단으로 하면서도 조선적인 이두음과 이두뜻에 기초한 이두글자로 조선말을 적는 독특한 유형의 글로서 발생, 발전’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류렬(1983)

이 앞서 살펴본 홍기문(1957), 김영황(1978)과 달리 이두글자와 그 음과 뜻을 나타내는 이두음, 이두뜻의 존재를 이두를 정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류렬(1983: 15)은 고유명사 표기에 쓰이는 글자들도 이두글자에 포함하고 있다. 가령 ‘貫忽’과 ‘水城’은 모두 우리말 ‘마고로/마구루’의 표기로서 ‘貫’와 ‘水’는 ‘물’의 옛말인 ‘마’의 표기에 쓰인 이두글자이고 ‘忽’와 ‘城’는 ‘성(城)’의 옛말인 ‘고로/구루’의 표기에 쓰인 이두글자라는 것이다.

이두글자에 대한 류렬(1983)의 인식은 앞서 살펴본 홍기문(1957)과 김영황(1978)의 이두자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홍기문(1957)은 이두자를 논함에 있어 고유명사 표기는 전혀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이는 홍기문(1957)의 견해를 대체로 계승한 김영황(1978)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김영황(1978)은 이두음을 논함에 있어 고유명사 표기인 ‘이두식 표기’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는 있으나, 이두식 표기에 쓰인 글자를 이두자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류렬(1983)은 이들과 달리 고유명사 표기에 쓰인 글자를 적극적으로 이두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두자에 인식은 류렬(1983: 15)로 하여금 고유명사 표기법을 이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두를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 고유명사 표기를 위한 ‘표기 방식’의 단계와 우리말 어순에 따른 문장을 표기하기 위한 ‘서사 방식’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김영황(1978)의 ‘이두식 표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두’의 영역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류렬(1983)의 제목인 ‘세나라 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사람, 벼슬, 고장이름의 표기를 통하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류렬(1983)는 이두가 고유명사 표기에서 문장 표기까지 가능한 서사 수단으로 발전하여 우리말 어순과 토를 반영하는 ‘초기이두’가 되었으며, 이것이 발전하여 이두식 서사방식의 발전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보여주는 ‘향찰’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홍기문(1957), 김영황(1978)에서 ‘이찰’이라고 부르는 이두의 형태를 ‘후기이두’라고 부르며, 초기이두를 일정하게

발전시켜 공문서에 쓰인 이두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류렬(1983: 31-33)에서는 구결을 ‘이두의 퇴화된 특수한 한 형태’로서 일종의 화석형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말을 기록하는 서사수단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 4) 오희복(1999)의 이두에 대한 개념과 인식

오희복(1999)는 가장 최근에 나온 북한의 이두 연구서이다. 오희복(1999: 25)에서는 ‘뜻글자인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하면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문자로서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우리말의 어순체계와 다른 한문의 어순을 고쳐 우리말의 문법적 요구에 맞게 문장을 꾸며나가는 과정’에서 이두가 생겨났다고 보며 이두를 ‘하나의 글말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이두를 문장 표기법으로 본 것이다.

또한 오희복(1999: 29-30)은 ‘우리말 단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글자를 새로 만들거나 이미 쓰던 한자에 새로운 뜻을 넣어서 이용하여 한자의 뜻과 음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고구려에서 이두를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는 하나의 과학적 근거로 된다’고도 언급하고 있어 이두를 어휘 표기법으로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두를 이루는 기본 요소로 이두어순, 이두음, 이두어휘만을 들고 있어 류렬(1983)처럼 고유명사 표기법을 적극적으로 이두의 한 유형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오희복(1999: 32-33)은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을 한문과 구별하게 하는 표식으로서 다섯 가지의 이두의 구성요소인 이두음, 이두자, 이두어휘, 이두토, 이두어순을 들고 있는데, 이는 김영황(1978)과 동일하다.

##### (15) 오희복(1999: 32-33)의 이두 구성 요소

- ㄱ. 이두음: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기록하는 데 쓰이는 본래의 한자음과는 구별되는 음.
- ㄴ. 이두자: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기록할 때 본래의 한자와는 다르게

쓰이는 글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두자와 본래의 한자를 변화시켜 쓴 이두자가 있다.

- ㄷ. 이두어휘: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을 때에 한자의 음 또는 뜻을 빌어 우리말 단어를 표기해 놓은 것.
- ㄹ. 이두토: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할 때에 한자의 뜻 또는 음을 빌어 우리말 토를 표기해 놓은 것.
- ㅁ. 이두어순: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을 때에 한문의 고유한 문법적 어순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말의 어순에 따라 문장을 이루어 놓은 것.

다만 이두음, 이두자, 이두어휘, 이두토, 이두어순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김영황(1978)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오희복(1999)에서는 이들을 모두 중국의 한문과 한자와 대비되는 우리말의 표기를 위한 요소라는 점을 보다 강조하여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유명사 표기에 쓰이는 글자를 이두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김영황(1978)과 달리, 오희복(1999: 55)에서는 지명표기인 ‘仇乙縣’에서 우리말 ‘굴’을 표기하기 위해 쓰인 ‘仇[구]’와 乙[리]와 같은 글자들을 류렬(1983)과 같이 이두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오희복(1999: 107-137)의 이두에 대한 하위 분류는 김영황(1978)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이두를 크게 초기이두, 이찰, 향찰과 같이 셋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초기이두는 금석문, 이찰은 관청공문서, 향찰은 향가를 기록하는 데 쓰이는 이두의 형태로 보고 있다. 구결은 김영황(1978)과 마찬가지로 이두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구결을 한문을 읽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이는 토로 인식하여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서사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희복(1999: 86)에서는 구결을 이두토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이두토를 설명하는 데에서 부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4. 국어학계와 조선어학계의 이두에 대한 개념 인식 비교

북한은 남한에 비해 이두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홍기문(1957)에서 확립된 이두의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이두는 대체로 한자를 차용하여 표기하는 우리말 문장 표기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홍기문(1957)에서는 이두를 문장 표기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 표기법과 같은 어휘 표기법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문장에 쓰인 이두어·이두토를 표기하는 이두자에 대한 차용 표기법으로서 음역, 의역, 이의역, 반음역을 다루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여 표기되는 고유명사의 표기법을 이두의 범주에 넣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영황(1978)에서는 고유명사 표기법을 이두식 표기라고 지칭하고 이에 대한 한자 차용 표기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립하여 이두의 논의 범위 안에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이두음을 이두식 표기를 이두식으로 읽는 음으로 정의하여 고유명사 표기를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류렬(1983)은 고유명사 표기에 쓰인 한자 차용자를 이두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고유명사 표기법도 이두의 한 유형으로 적극적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오희복(1999)에서도 류렬(1983)과 마찬가지로 고유명사 표기에 사용된 한자 차용자를 이두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남한과 달리 고유명사 표기법을 이두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바로 이두자에 대한 북한 학자들의 개념 정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홍기문(1957)에서는 이두자를 기존의 중국 한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글자 내지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변경한 글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라 이두자에는 한국 고유 한자처럼 새로 만들어낸 글자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외형상 한자와 동일하더라도 그 소리, 뜻이 한자 본래의 소리, 뜻과 달라지면 이두자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즉 이두자는 중국과는 다른 우리만의 형태, 소리, 뜻을 갖는 우리의 글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두자에 대한 인식은 김영황(1978)의 이두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에서 비롯하여 류렬(1983)의 이두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로 이어

졌으며 오히려(1999)에도 계승되었다.

홍기문(1957)에서는 한문과 구별되게 만드는 이두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이두어, 이두토, 이두어순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두자의 특성은 이두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환(1978)에 이르러 여기에 더해 이두자와 이두음이 이두의 구성 요소로서 추가된 후, 이두자가 이두의 중요 요소로서 부각되었다. 나아가 류렬(1983)에서는 이러한 이두자를 이두의 필수 요소로서 인식한 까닭에, 고유명사와 같은 어휘 표기에 쓰인 한자가 우리말의 소리와 뜻으로 읽힌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이두자로 간주하여 고유명사 표기법을 이두로 볼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이두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박성종(2016)에서는 이두자를 이두토 표기에 쓰인 글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 이두자에 포함하고 있는 새로 만든 글자를 한국 고유한자로서 따로 취급을 하고 있다. 더욱이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이승녕(1955) 이후로 고유명사 표기법에 해당하는 어휘 표기법을 문장 표기법과는 별개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였기에, 고유명사 표기에 쓰이는 한자 차용표기자를 북한의 조선어학계와 같이 이두자로 인식하지 않아 왔다.

전통적으로 이두토를 이두로도 칭하는 경우가 있는 남한의 국어학계와는 달리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는 이두토를 이두로 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홍기문(1957)에서 확립된 이두와 이두토의 개념이 이후 북한의 조선어학계 전반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는 조사와 어미만을 이두토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일부 어휘 요소도 이두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토에 대한 인식이 남한과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는 토를 조사와 어미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데, 이두토가 조사와 어미만을 가리키는 것은 이러한 토의 쓰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반면에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토를 대체로 구결에서 한문 원문에 덧붙는 요소로서 파악해 왔는데, 구결토에는 ‘爲乎矣’의 ‘爲-’와 같이 어휘적인 요소도

포함되게 되므로 이를 원용한 ‘이두도’에도 ‘爲-’와 같은 어휘적 요소가 포함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구결에 대한 개념과 인식에 있어서도 남한과 북한의 학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1973년에 발견된 석독구결의 존재를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 데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우리말로 풀어 읽는 석독구결이 발견됨에 따라 구결을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의 문장을 표기하는 표기법의 일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는 이러한 석독구결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구결은 모두 한문을 한문의 어순에 따라 한자음으로 읽으면서 구결말에 우리말 토를 붙여 읽는 음독구결만을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음독구결은 우리말 문장 표기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는 현재 구결을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 문장을 표기하는 표기법을 지칭하는 이두의 하위 유형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 5. 맺음말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이두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두라는 술어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고 또 시대마다 지칭하는 대상이 조금씩 변해 왔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도 관찰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의 대표적인 이두 연구서에서 이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 그 결과를 남한의 국어학계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다.

북한의 이두에 대한 개념은 홍기문(1957)에서 기본적인 토대가 이루어졌다. 그는 조선어의 문법 구조에 따라 개편된 조선 한문을 독송한 결과를 기사(記寫)하는 데서 기원하고 발전한 서사어로서 이두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문과 구분되는 이두의 기본적 구성 요소로 이두어순, 이두어, 이두토를 들고 있다. 김영황(1978)은 홍기문(1957)의 이두 개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

였다. 그는 고유명사 표기법을 다루지 않았던 홍기문(1957)과 달리 이를 ‘이두식 표기’로 지칭하며 이두의 논의 범주로 끌어들이었으며, 이두식 표기를 이두식으로 읽은 음으로 이두음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고유명사 표기에 쓰인 글자들도 이두자로 볼 수 있다는 인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류렬(1983)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이두자를 이두의 필수 요소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두자는 중국의 한자와 다른 우리만의 형태, 소리, 뜻을 갖는 우리의 글자로서 한국 고유 한자처럼 새로 만들어낸 글자가 포함된다. 또한 외형상 한자와 동일하더라도 그 소리와 뜻이 한자 본래의 소리와 뜻과 달라지면 모두 이두자에 포함된다. 이러한 인식은 오희복(1999)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이에 반해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이두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박성종(2016)에서는 이두자를 이두토 표기에 쓰인 글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 이두자에 포함하고 있는 새로 만든 글자를 한국 고유한자로서 따로 취급을 하고 있다. 더욱이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이승녕(1955) 이후로 고유명사 표기법에 해당하는 어휘 표기법을 문장 표기법과는 별개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였기에, 고유명사 표기에 쓰이는 한자 차용표기자를 북한의 조선어학계와 같이 이두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아울러 구결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 남과 북의 학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는 석독구결이 발견됨에 따라 구결을 우리말 문장 표기법의 일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는 음독구결만을 구결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구결을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 문장을 표기하는 표기법을 지칭하는 이두의 하위 유형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국어학계와 북한의 조선어학계에서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과 개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남북 분단 후 남한의 국어학과 북한의 조선어학이 서로 단절되어 독자적인 학문적 발전을 이루어 온 것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의 학자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술적인 논의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전적인 토론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북한의 연구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연구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영환,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김윤경, 『朝鮮文字及語學史』, 京城: 朝鮮紀念圖書出版館, 1938.
- 남풍현, 『차자표기법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81.
- \_\_\_\_\_, 『國語史를 위한 口訣研究』, 태학사, 2000.
- \_\_\_\_\_, 『吏讀研究』, 태학사, 2002.
- 남풍현·이건식·오창명·이용·박용식, 『吏讀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2020.
- 노명호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 서울대학교출판부, 2010.
- 류 렬,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박성증, 『朝鮮初期 吏讀 研究』, 역락, 2016.
- 방중현, 『훈민정음통사』, 일성당서점, 1948.
- 서중학, 『吏讀의 歷史의 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
- 안병희, 『이문과 이문대사』, 탑출판사, 1987.
- 오희복, 『리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9.
- 이건식, 『한국 고유한자의 구성법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2021.
- 이기문, 『개정판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1972.
- \_\_\_\_\_,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1998.
- 이승재,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1992.
- 이희승,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1955.
-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 장지영 외, 『이두사전』, 이화문화사, 1983.
- 홍기문,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1957.
- 홍순탁, 『吏讀研究』, 광문출판사, 1974.
- 小倉進平,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1929.

### 2. 논문

- 강 영, 『북한의 이두연구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1945~1990』 1, 녹진, 1991, 274~293쪽.
- 남풍현, 『한자 차용 표기법의 발달』, 『국문학논집』 7·8, 단국대학 국문학과, 1975, 3~47쪽.
- \_\_\_\_\_, 『이두·항찰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국어생활』 6, 국어연구소, 1986, 11~29쪽.
- \_\_\_\_\_, 『이두·구결』,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990, 594~604쪽.
- \_\_\_\_\_, 『上古時代に 있어서 借字表記法の 發達』,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2006, 5~25쪽.
- 도수희, 『이두사 연구』, 『논문집』 2-6,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75, 1431~1461쪽.
- 박성증,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서용국, 『리두 및 향가 연구사』,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1996, 496~530쪽.
- 서중학, 『吏讀의 文法形態 表記에 관한 歷史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_\_\_\_\_, 『吏讀의 개념과 성격』,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2011, 27~55쪽.
- 안병희, 『설총과 국어』, 『새국어생활』 11-3, 국립국어연구원, 2001, 5~20쪽.
- 이기문, 『양잠경험찰요 해제』, 『서지학』 6, 한국서지학회, 1974, 99~104쪽.
- 이승녕, 『신라시대의 표기법체계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2, 서울대학교, 1955, 62~166쪽.
- 이승재, 『고려시대의 이두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 용, 『고대 및 중세 이두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2008, 139~167쪽.
- 이현희·최성규·김한결·정혜린·홍은영, 『북한의 1990년대 언어사와 언어학사 연구』,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vol. 1: 북한의 현실과 남북협력』, 진인진, 2018, 10~61쪽.
- 정재영, 『대한제국시기의 서양인의 이두 연구』, 『한국문화』 22, 한국문화연구소, 1998, 51~84쪽.
- 최승주, 『언어사연구사』,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1996, 444~495쪽.
- 岡倉由三郎, 『吏道, 諺文考』, 『東洋學藝雜誌』, 1893, 143~144쪽.
- 金澤庄三郎, 『吏讀の研究』, 『朝鮮彙報』 4, 朝鮮總督府, 1918, 71~99쪽.
- 中村完, 『史的名辭「吏讀」의概念とその意識について』, 『조선학보』 78, 조선학회, 1976, 21~44쪽.
- 北郷照夫, 『이두자료의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吏読に対する北朝鮮学者の概念と認識

－洪起文、金榮晁、柳烈、オ・ヒボクを中心に－

文玄洙\*

韓国の国語学界では、吏読の概念は学者により大きな違いを見せる。このような現象は北朝鮮の朝鮮語学界にも同じであろうか。本稿では、北朝鮮の代表的な吏読の研究書においての吏読の概念を検討し、その結果を韓国の国語学界の見解と比べてみた。

北朝鮮において吏読に対する概念は、洪起文(1957)で基本的な土台が設けられた。彼は漢文を朝鮮語の文法構造により改編した朝鮮漢文という概念を提唱し、それを読送した結果を記すことにより誕生した書写語が吏読であると主張する。金榮晁(1978)は、洪起文(1957)の吏読に対する概念を発展的に継承した。彼は固有名詞表記を吏読式表記と呼び、それを吏読の範疇に引き入れた。そして、吏読音を、吏読式表記を吏読式に読んだ音と改めて定義した。柳烈(1983)に至っては、固有名詞表記に使われた文字も吏読字として認識し、それを吏読の必須要素とした。それで、吏読字は中国の漢字とは違う朝鮮だけの形態、音、意味を持つ朝鮮の文字になり、ここには韓国固有漢字のように新しく作り出した文字が含まれる。そして、外形上漢字と同じでもその音や意味が漢字本来の音や意味とは違ふと、その文字をすべて吏読字と見做すようになった。吏読字に対するこのような認識は、オ・ヒボク(1999)でも観察される。

これに対し、韓国の国語学界では、吏読字をこのように定義しない。たとえば、朴盛鐘(2016)は吏読字を吏読吐の表記に使われた文字に限定する。そして北朝鮮の朝鮮語学界では吏読字と見做す新しく作られた文字を韓国固有

---

\*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漢字と定義して別に扱っている。さらに、李崇寧(1955)以降、語彙表記法と文章表記法とを区別しているため、固有名詞表記に使われる文字を吏読字と認めない。

また、口訣に対する概念や認識も南北の学界では違いを見せる。韓国の国語学界では、積読口訣の存在により口訣を韓国語の文章表記法の一種と認識している。一方、北朝鮮の朝鮮語学界では、音読口訣だけを口訣と見做し、口訣を朝鮮語の文章表記法としては認めない。したがって、口訣は、漢字を借用して朝鮮語の文章を表記する表記法を意味する吏読の下位類型には含まれていない。

**키워드**: 吏読、国語学、朝鮮語学、洪起文、金榮晃、柳烈、オ・ヒボク

